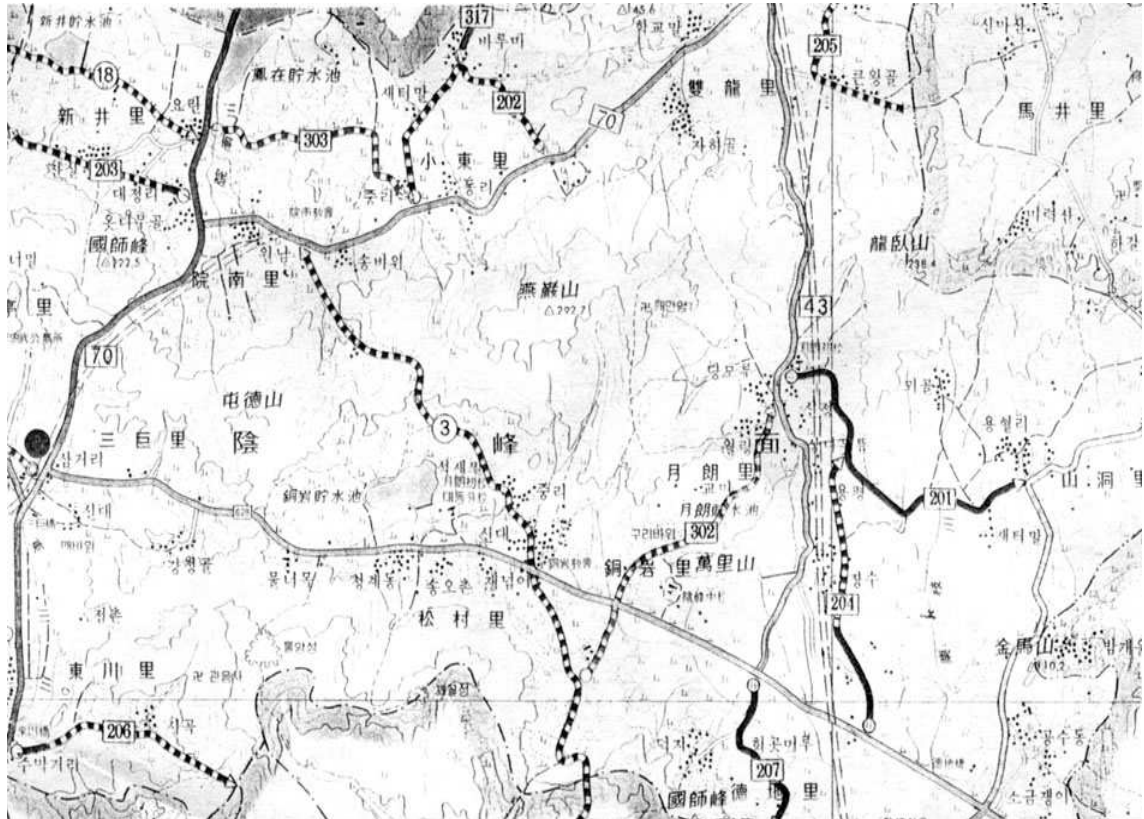


월랑리·月郎里

월랑리는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처음에는 위라미 월랑 월라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위랑 이 또는 월랑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수리 용평리 신성리를 병합하여 월랑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월랑리는 자연부락으로 2개리로 나뉘는데 1리는 월랑 2리는 장수라 한다. 월랑리의 총 인구는 594명이며 총182가구중139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월랑리 위치도>



⊠ 월랑, 장수 마을

월랑1리는 온양시 북동쪽에 위치한 월랑리는 6개의 골(갱골, 생골, 망골, 석골, 참새골, 까치골)7개 반(뽕말, 당모루, 짐말, 상나무동, 새터말, 중안말, 용평)으로 이루어져있고 동으로는 용화산, 서로는 연암산이 있으며 남으로는 월랑저수지가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앞이 트인 아늑한 마을이며 용화산고인돌이 하나 있으며 달이 밝은 마을이라고도 하여 월랑리라 한다.

월랑2리는 일명 장수마을이라고 하며 이는 용화산 줄기를 이어받은 산새에 자리잡은 마을로 용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 용이 하늘로 오를때는 물을 힘차게 차고 오른다고 해서 길장(長)자 와 물수(水) 자를 써서 장수라고 하였다.

<조사당시 월랑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월랑리는 면소재지에서 628도로로 오다보면 송촌리를 지나 동암리 뒷마을로 월랑저수지 주변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음봉중학교가 있고 월랑 초등학교도 있다.

2) 현황

월랑1리의 인구는 남자 185명 여자 236명으로 여자가 많으며 118가구중 92%인 109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경지 현황에서는 논이 58.5ha 밭이 26ha로 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월랑2리인 장수마을은 남자 79명 여자 94명이며 64가구중 30가구인 4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논이 38ha 밭이24ha이다.

- 인구 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월랑1리마을	421명	185명	236명
장수마을	173명	79명	94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월랑1리마을	100%	92%	8%
장수마을	100%	47%	53%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월랑1리마을	84.5ha	58.5ha	26ha
장수마을	62ha	38ha	24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월랑1리마을	35	11	5	35	17	35	5
장수마을	13	8	19	8	5	10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월랑1리마을	1	1	1조	1	1	1조
장수마을	1	1	1조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월랑1리마을	46	35	73	62	49	52	58	19	9
장수마을	16	31	20	26	36	18	26	14	7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심씨	홍씨	기타
월랑1리마을	12%	20%	7%	9%	9%	43%
장수마을	32%	35%				335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월랑1리마을	13	5	6	5
장수마을	9	5	6	2

－ 최고령자

월랑1리 장홍근씨 99세, 장수마을은 김수용씨 87세

－ 호당평균소득

월랑1리 년/1,000만원, 2리 장수마을 년/800만원

3) 자연경관

월랑리는 월랑 저수지 주변마을로 만리산, 용화산, 연암산으로 둘러 싸여 아늑하고 앞이 트인 마을로 음봉중학교와 월랑초등학교가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처음에는 위라미 월랑 월라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위랑이 도는 월랑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수리 용평리 신성리를 병합하여 월랑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됨 이곳에 운중반월형의 명당이 있다함.

5) 입향

월랑1리는 처음 터를 잡고 산 성씨는 임씨이고 마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가 가장 많으며 지금118가구가 살고 있다.

월랑2리 장수마을은 9대째 진도 김씨가 살고 있으며 마을의 생성년대는 약270년 정도로 추정되며 마을이 제일 번성한 시기는 20년전으로 현재는 64가구만이 살고 있다.

6) 지명

월랑이 : 월랑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성황당이 있었음.

당모루 : 신성옆에 있는 마을 성황당이 있었음.

신 성 : 월랑이 북동쪽에 새로 된 마을

용 뜰 : 용뜰에 있는 마을

장 수 : 용뜰 남쪽에 있는 마을 .

용 뜰 : 위랑이 앞에 있는 뜰 .용화산 동남쪽이 됨.

월랑천 : 월랑리에서 덕지리를 거쳐 대동내와 을지내가 합하여 매곡천으로 들어감.

월랑저수지 : 월랑리에 있는 만수량 555천톤인 저수지.

고인돌 : 고인돌이 두 개가 있으나 하나는 거의 파손되고 하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월랑리 절터 : 당모루 마을 뒷산에 절터가 있음.

7) 전설

·목베기 고개

음봉면 월랑리에 장수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일제시대 일본사람이 산혈을 보니까 장수가 나올 마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수가 나오면 일본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봐 마을 뒷산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의 목을 잘랐다. 그래서 이 마을은 장수가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산목을 자른 곳이 남아 있다. 이 일이 있던 후로 마을 이름을 장수라 불렀다.

산의 목을 자른 고개이므로 목베기 고개라 한다. 일제시대의 압박으로 수많은 인제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상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그 과거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된 한국 세계 선진대열에 당당히 1위로 설 수 있는 빛나는 한국을 만들도록 각자 본분을 지켜 이러한 서글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 본다.

·이무기 굴

음봉면 용화산에 있는 크고 긴 굴로 이무기굴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오랜 가뭄끝에 단비를 맞이한 음봉은 눈에 물을 대기 위해 삼을 들고 가던 중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소리를 찾아 나서니 큰 연못에서 청색이무기와 황색 이무기가 서로 엉키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놀란 음봉은 호기심에 못이겨 그 싸움을 지켜보았다.

황색의 이무기는 피를 많이 흘리며 고통의 신음소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음봉이는 황색의 이무기를 돕고 싶은 갑작스런 마음에서 청색 이무기를 향해 들고 있던 삼을 힘껏 던졌다. 금속성 소리를 울리며 뛰쳐나간 삼은 청색 이무기의 몸에 깊숙히 박혔다.

청색이무기는 음봉을 향해 저주와 원망의 눈초리를 보낸 후 자위를 감추었다.

잠시후 황색 이무기는 하얀 수염의 노인으로 변해 명칭히 서 있는 음봉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덕분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음봉은 갑작스런 변화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저는 본디 하늘의 문지기였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던 중 하늘의 급한 용무로 온 사자를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전 옥황상제의 벌로 천 년을 이무기로써 지내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착한 일, 천가지를 해야만이 죄를 면할 수 있겠지요, 오늘이 바로 그

천날째입니다. 그런데 용화산의 굴에 사는 청색 이무기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저를 방해하는 바람에……" 노인은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를 메아리로 남기고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승천(昇天)하자 음봉은 눈에 물 댈 것도 삼도 잊어 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2년뒤 음봉이 혼인할 나이가 되어 중매장이의 소개로 혼인이 성립된 음봉은 홀어머니를 집에 남기고 산 너머에 있는 신부집을 향해 떠났다.

그 이튿날 마당을 쓸고 있던 음봉의 어머니는 신부집에서 달려온 하인에게 음봉이 어젯밤 도착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마을 주민과 음봉의 어머니, 신부집 하인들은 용화산을 뒤졌지만 희미한 발자욱만이 무엇에 이끌려 간 듯한 발자취가 굴앞에서 멈춰진 것만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 후 마을엔 흉년이 들고 몇 집이나마 농사를 지어 놓으면 누구의 소행인지 모조리 짓밟아 농기가 일쑤였다. 불행은 겹쳐 용화산을 넘던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마을은 쑥밭이 되고 아들, 남편을 잃은 여인네들의 울음소리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한편 음봉의 신부 순례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한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뒷뜰에 있는 큰 정자나무에 정성껏 백일기도를 드렸다. 그날도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 드린 후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순간 하늘에서 흰 수염을 늘어뜨린 신이 내려오며 기도를 드리는 순례에게 "하늘에서 당신의 정성에 탄복하여 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저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용화산의 청색 이무기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청색 이무기는 본디 성질이 포악해 하늘에서 버림을 받은 신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져가서서 청색 이무기의 꼬리에 다십시오. 그 다음엔 제가 맡겠습니다. 이 일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이지만 이미 그분의 원수를 갚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은 순례에게 조그마한 구슬을 내밀었다.

순례가 구슬을 받아들자 신은 구름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순간 깜짝 놀란 순례는 잠에서 깨어났다. 치마폭엔 소중한 놓여진 구슬이 있었다.

이튿날 순례는 남장차림을 하고 어머니께 편지로써 하직 인사를 한 후 용화산의 굴로 향했다.

고생을 하며 굴에 도착한 순례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쥔 구슬을 놓칠세라 힘껏 쥐고 굴로 들어갔다.

순례가 굴로 들어간 후 뒤늦게 사실을 안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달려든 어머니가 굴을 쳐다보니 황색의 용과 꼬리에 무엇인가를 단 청색의 이무기가 굴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싸움을 하던 청색 이무기가 꼬리의 구슬이 터지자 갑자기 기운을 잃은 듯 하늘에서 떨어져 굴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릴 사이도 없이 굴로 들어가 죽어가는 며느리를 등에 업고 나왔다. 어머니는 싸움에 지친 황색의 용에게 며느리를 살려줄 것을 애원했다.

"아들은 이미 죽은 몸이니 오직 한가지 소원이라면 며느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발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황색의 용은 노인으로 변해 두 사람을 살려내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늘로 승천했다.

그 이후 마을의 흉년을 사라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순례네는 물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용화산의 굴을 이무기가 나온 굴이라 하여 이무기굴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굴은 워낙 굴 속이 깊어 그 끝을 알수 없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서해로 통했다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월랑리는 50년전만 해도 산제를 짐승박이 고개에서 음력 정월에 지냈는데 미신이라 여겨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마을 행사로는 옛날에 줄다리기를 했었고 요즘은 보린회라는 마을 단체에서 효자 효부들에게 상을 주며 잘못된 이에게는 벌을준다고 한다.

마을에 애경사가 생기면 보린회는 물론 청년회, 부녀회등이 함께한다.

월랑2리인 장수마을은 음력 정월 14일에 부부가 돌아가면서 산신당에서 산제를 지냈었는데 미신이라하여 지금은 산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개안사 음봉면 월랑리 산76-6 주지 전영옥 종파 : 조계종
천안 성정동 성당월랑공소 음봉면 월랑리 285번지 회장 심보식

11) 공장현황

현재 이 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월랑리마을에는 비문이 있는데 구역말에는 청주 이씨비문과, 당모루에 남양홍씨 제실, 심씨 정문과 열녀비가 있다.

마을 중심에는 약100 년이 넘는 오래된 괴목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나무를 보호수로 지정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다.